

■ 주요 기사

○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관련(6건)

조선	고농도 미세먼지 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동아	초미세먼지 車2부제 맹탕 우려
매경	미세먼지 이틀연속 심할땐 車2부제
한경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경향	15일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차량 2부제'
한겨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조치 15일부터 적용

○ 노동 이사제 관련(5건)

한겨레	폴크스바겐 '해고없는 3만명 감원' 노사합의 비결은 '노동이사제'
	유럽 선진 경제·노사관계 뒤엔 노동자 경영 참여
	노동자 경영참여의 '효시' 독일
	노동자 경영참여 '강한 국가' 파업 10일 vs '약한 국가' 105일
	서울 이어 성남도 노동이사제 도입...대선후보들도 공약

○ 기득권 노조 관련(3건)

중앙	"노조가 작업장 완전 장악 ... 현대차, 제2 한진해운 될 수 있다"
동아	송호근 서울대 교수 "현대차 노조 '야리끼리'... 어마어마한 저항이 혁신 막아"
경향	"노동자들의 열정이 무너지면 한국 대기업도 무너져"

■ 주요 칼럼 · 기고

○ 청년 일자리 관련(2건)

동아	[홍수용의 다른 경제]청년일자리 막는 '3敵' 누군가
매경	[매경춘추] 대졸 취업률 높이려면 (이재훈 한국산기대 총장)

○ 온실가스 관련(1건)

한경	[뉴스의 맥]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이뤄야 온실가스 줄인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조선	환경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A12면	
		내용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 먼지 현상이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이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 단축 등 비상 저감 조치가 15일부터 시행	
중앙	노동	제목	“노조가 작업장 완전 장악 … 현대차, 제2 한진해운 될 수 있다” E3면	
	내용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신간 『가 보지 않은 길』을 발간, 현대차 노조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냄. “정권이 바뀔다고 문제가 해소될까. 기업 현장과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		
	환경	제목	유리엔 원래 없는 성분 ‘무검출’ 광고 … 친환경 속이는 ‘그린워시’ 과징금 물린다 A12면	
		내용	친환경적이지 않고 환경보호 효과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제품이 적지 않음. 이 같은 ‘그린워시(green-wash)’ 상품에 대해 환경부가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매기겠다고 밝힘	
동아	노동	제목	송호근 서울대 교수 “현대차 노조 ‘야리끼리’… 어마어마한 저항이 혁신 막아” A12면	
		내용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공 가도를 달렸던 현대차가 신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조립 공정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어마어마한 저항이 현대차의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	
		제목	日직장인들 집에서 ‘온라인 회식’… 화상통화로 “건배” A21면	
		노동	내용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며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회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함
			제목	한화, ‘1일 1시간 자기계발’ 도입 1년 B2면
			내용	(주)한화는 지난해 3월 ‘1일 1시간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공식 근무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1시간을 할애해 자기계발에 쓰도록 한 것
고용 복지	제목	[홍수용의 다른 경제]청년일자리 막는 ‘3敵’ 누군가 A31면		
	내용	노동개혁이 실패한 것은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이기도 하지 만 그 전에 3개 기득권집단(대기업노조, 정치인, 관료)이 무책임했기 때문. 자기 일이 아니니 노사정 대타협 같은 명분이 중요할 뿐 절박함은 없었음		
	환경	제목	초미세먼지 車2부제 맹탕 우려 A14면	
내용	15일부터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민간과 수도권 외까지 확대할 계획			

매체명	주 제		
매경	고용 복지	제목	[매경춘추] 대졸 취업률 높이려면 (이재훈 한국산기대 총장) A33면
		내용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면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해야. 대학이 직접 나서서 재학 기간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물론 기업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보다 과감해져야
매경	환경	제목	미세먼지 이틀연속 심할땐 車2부제 A12면
		내용	수도권에 이틀 연속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15일부터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가 시범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는 차량 2부제가 민간까지 확대되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
한경	노동	제목	회사측 70.3%·노동자측 58.7%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만족" 9면
		내용	고용노동부는 2014~2016년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 13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 측은 70.3%, 노동자 측은 58.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발표.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회사 측 1.4%와 노동자 측 8.0%에 그침
	환경	제목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29면
		내용	15일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민간 부문으로 차량 2부제를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
한경	환경	제목	[뉴스의 맥]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이뤄야 온실가스 줄인다 33면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내용	전기구매의 '경제급전 원칙 적용으로, 원전·석탄발전을 우선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해짐. 연료비 외 사회적 비용도 반영, 에너지세제 전면 개편 필요

매체명	주 제		
경향	노동	제목	노동자 표심 '구애'...안희정 "투쟁 넘어 합의로", 이재명 "노조의 힘 키워야" A5면
		내용	안희정 지사는 추사에서 "노동자가 의제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고 '투쟁'을 넘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이재명 시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의 몫을 늘려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강화'를 강조
		제목	넷마블 "심야 업데이트 금지"...게임노동자들 과부하 줄인다 A16면
		내용	넷마블의 '일하는 문화 개선안'이 회사 전체에 의무 도입. 심야 업데이트의 금지, 인원 총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김
	환경	제목	"노동자들의 열정이 무너지면 한국 대기업도 무너져" A23면
		내용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작 <가 보지 않은 길>에서 현대자동차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제조업에 닥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
		제목	15일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차량 2부제' A11면
		내용	15일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으로도 확대
환경	제목	"4억 시민을 스모그에 방치" 중국 인권변호사들, 정부 상대 소송 A15면	
	내용	중국 변호사 5명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성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방정부들이 극심한 스모그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매체명	주 제		
한겨레	노동	제목	폴크스바겐 ‘해고없는 3만명 감원’ 노사합의 비결은 ‘노동이사제’ 1면
		내용	경제민주화의 길’ 노동이사제, 폴크스바겐·볼보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이사가 명퇴 유도·시간제 일자리 마련 앞장서는 등 ‘고통분담’ 협력 이끌어. 국내 조선업계 수만명 감원과 대조
		제목	유럽 선진 경제·노사관계 뒤엔 노동자 경영 참여 4면
		내용	‘경제민주화의 길’ 노동이사제, 독일·프랑스 등 13개국서 전면시행, 스페인·체코 등 6개국은 부분시행. “노동자 경영참여 기업 성과 더 좋아”. 영국 총리도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제목	노동자 경영참여의 ‘호시’ 독일 4면
		내용	독일은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의 호시로 불린다. 노동자가 단순히 경영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노사가 회사 경영의 주요 사항을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독일 특유의 ‘노사공동결정제’를 발전시킴
		제목	노동자 경영참여 ‘강한 국가’ 파업 10일 vs ‘약한 국가’ 105일 14면
		내용	유럽 국가들이 선도해온 노동이사제의 성과 분석을 엄밀히 보면, 대부분 경영 성과에 있어선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결론에 귀착. 제도가 한국 경영계의 우려처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은 당연히 더 찾기 어려움
		제목	서울 이어 성남도 노동이사제 도입…대선후보들도 공약 5면
		내용	서울시에 이어 성남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선언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노동자 경영 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환경	환경	제목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조치 15일부터 적용 14면
		내용	환경부는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와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 단축 등의 비상조치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끝>